

“ 기독교인의 품위와 고상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

■ 이종윤 원로목사

16세기 개혁자들은 복음의 본질이 변질, 왜곡 그리고 형태가 손상되었을 때 과감하게 본래의 복음인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성경의 교회 모습보다는 무례하고 천박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변두리로 몰아내고 제 주장 세우기에 급급하고 어디서나 최고가 되고 자기 것만 최선이라고 우겨대는 모습을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반기독교적, 반예수, 반성경운동이 확산되고 Anti기독교 사랑하는 모임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무례나 무지를 탓하기 전 우리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시인해야 한다.

어떻게 고상하고 품격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앞에서 신전(Coram Deo)의식을 갖고 사는 이가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신을 믿는다면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자만심에 빠진 이들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온다고 믿는 이가 기독교가 자기만의 종교요 자기만 구원받은 백성이라 주장한다면 그리고 기도의 대상도 무엇을 기도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냐 다 들어주신다면서 자신의 탐욕 충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이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여 …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였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새집을 건축할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편이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각박하게 대하지 말고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대로 배불리 먹되 그릇에 담지는 말라”하신 대로 너그럽게 여유 있게 이웃을 대접해야 한다. 상대방을 경쟁상대나 부리는 대상으로가 아니고 소망, 기쁨, 자랑의 대상으로 타인을 보아야 한다. 현실에 초연하고 궁극적인 것에 시선을 집중할 때 신앙의 고상함과 품위가 드러나게 된다. 초대교회에도 위선, 이단, 음란, 당짓기,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이 있었으나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 배우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바뀜으로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표출되었다.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즉 무신론자 복술사 창녀 세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역사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죄를 자복하는 통회의 역사와 가치관의 변화로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물질관에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높은 도덕심과 영성 때문에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은 이상적 삶을 사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지상에 살지만 이방인같이 살되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를 좇아 사는 다른 삶을 산다 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기독교가 그 질적 독특성 때문에 가졌던 품위와 고상함을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회복하여 성령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자.

-한국장로신문 [제 1377호] 2013년 8월 3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3부 예배 형태로 진행하되,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새로 강화된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을 존중하여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부와 2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접속방법은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816_sermon.jpg




교회 도착 시 교회 앞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신 주차가 어려우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운전하시어 카이로스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사무국에서 주차권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p> <p>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p> <p>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서울교회QR코드</p>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역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혜(사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사형정(러시아), 허창방(한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네(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 사지, 에블(인도), 스프로르(보리), 필리핀, 프르산토, 수레시, 수버샤, 알로통, 비시누브도, 보디스토, 린툼, 수리칸(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진(홍성익(필리푸), 이재울(박병진(칸보디아), 이재훈(박재연(미디카스카르)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서울교회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7 7, Samsu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집과 터 ”

■ 고전 3:9-11

사도는 성도들, 즉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집과 관련하여서는 10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함인 것을 생각한다면 자신을 건축자로 묘사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1.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인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터’라고 사용된 헬라어 세멜리온(θεμελιον)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터는 하나밖에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로 말하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으로 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기초 혹은 터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모든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가 견고해지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합니다.

2. 교회 세움의 재료

하나님의 집의 터는 개인이나 교회 구성원들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친히 닦아놓으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워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을 세우려면 주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집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뭘 좋아하시는 분인지 파악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집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기본적인 사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가라지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가는 튼튼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물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뛰어난 자들, 혹은 화려한 의상을 뽐내는 부자들이 드나드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날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모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릴 때 그가 가진 물질적인 것이 초라해 보여도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터득해야 합니다.

맺는 말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에 구성된 그릇이 어떤 것들이냐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주인의 쓰임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 성분은 여러분이나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을 만드시는 분의 주권적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산물이니 것입니다. 나의 나 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제대로 쓰임을 받느냐의 문제는 내 자신이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1-25). 지혜로운 건축자로서의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함께 지어가야 할 가장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서장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하인선 장로
II 오전11시20분	장석남 목사	임상헌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7: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01(나라 사랑 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70(7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갈 4:28-5: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268(20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례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45:1-2 인 도 자
 찬 송 384(434)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수 5:1-9 인 도 자
 설 교 “길갈의 할레” 인터넷 영상
 찬 송 401(457)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 결 혼
 - 김재련 군 (김승완, 오인옥 씨의 장남)과 유수진 양 (7교구 유병철 장로, 이현주 권사의 장녀) / 8월22일(토) 오후 1시 금용감동원 2층(02-3145-5114) /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401명	230명	1,631명	1,913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8/9)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9일	헌 금	47,773,230	
	특별예배비		80,360
	교회학교운영비		557,000
	선 교 비		6,000,000
	출 판 비		210,000
	복리후생비		132,500
	통 신 비		802,970
	차량유지비		343,700
	사무용품비		20,770
	수선유지비		887,000
	식당운영비		423,860
	합 계	47,773,230	9,458,16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